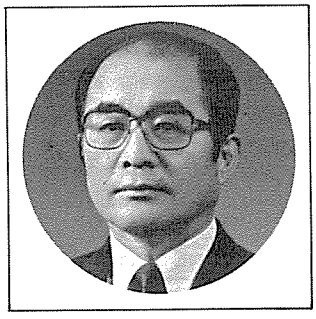
綜合製鐵의 잉태와 誕生〈下〉

「國家産業의 쌀」 20여년 試練끝에 宿願事業실현



金 在 官
〈仁川大學校 大學院長〉

두 副總理의 해임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 政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計劃目標를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오직 綜合製鐵所建設事業만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工業化의 진전에 따라 鐵鋼材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갔다.

그러다가 1966년에 접어들어 朴大統領의 美國訪門을 계기로 다시금 綜合製鐵所建設問題가 제기되어 外國企業의 對韓製鐵國際借款團 구성이 적극화되기 시작했다.

美國 Koppers사의 Foy會長이 주축이 되어 서독, 이태리, 영국 등 4개국의 7개 會社로 된 對韓製鐵國際借款團(KISA)을 구성했다.

그래서 많은 교섭과 협의끝에 1967년에는 張基榮副總理와 KISA간에 綜合製鐵建設合意書가 조인되었다. 제철소의 연산규모는 50만톤, 소요외자는 1억2천5백만달러로서 KISA는 1968년까지 외자를 알선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政府는 1967년 7월에 綜合製鐵所의 입지를 蔚山에서 浦項으로 변경하였다. 浦項은 製鐵所敷地 200만평과 아울러 鐵鋼聯關工業團地用 부지도 약 150만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다.

그해 9월에는 당시 國營企業體中에서 가장 자금의 여유가 많은 大韓重石을 綜合製鐵建設의 추진업체로 지정했다.

1954년에 仁川重工業의 건설때 우선 토목공사를 먼저 서둘러 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정되지도 않은 本工場建設에 앞서 우선 지원시설건설을 서두르기로 하고 1967년 10월 3일의 開天節에 浦項現地에서 內資工事의 기공식을 갖기로 했었다. 綜合製鐵實現에 열을 쏟았던 張基榮부총리는 起工式場으로 가는 도중에 해임되고 말았다. 그리고 商工部長官이던 朴忠勳씨가 부총리로 임명되었다.

政府는 KISA와의 협의를 본격화시켜 10월에는 연산 60만톤 규모의 綜合製鐵工場建設計劃 기본계약을 KISA와 체결하고, 또한 大韓重石의 朴泰俊씨를 위원장으로 한 綜合製鐵建設推進委員會를 새로 발족시켰다.

1968년 4월 1일에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朴泰俊씨가 社長으로 임명되어 오늘날의 세계적 綜合製鐵所를 이룩하는 大役事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KISA와의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Battelle과 KIST가 종합제철의 기술계획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KIST에 있던 筆者는 1968년 5월에 美國의 피츠버그에 있는 Koppers 本社에서의 技術會議에 참석하여 소위 KISA안을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내놓은 안은 7個共同體會社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이 덜 된 상태였으며, 제1단계 제강능력은 약속한대로 60만톤이었으나 앞으로 工場을 확장함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3단계 확장을 해도 경제규모에 미달하는 180만톤 정도 밖에 되지않는 前近代的인 안이었다.

특히 壓延工場에 있어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連續壓延施設이 아니라 Steckel 熱間可逆壓延機를 추천했다. 그리하여 製鐵所 전체가 조기투자는 적게들어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규모에 맞는 확장이 어려워 현대적 綜合製鐵所로서는 부적합한 안이었다. 이 안을 받아본 우리 일행은 이 불합리한 計劃案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計劃書를 韓國政府에 제출해야할 기한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綜合製鐵所를 장차 大單位의 현대적 공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工場配置計劃案을 만들어 주고, 이 안을 KISA안에 포함시켜 韓國政府에 제출함으로써, 政府가 KISA안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도 거절했다.

그리고나서 2개월후에 KISA는 그들의 綜合技術計劃書를 韓國政府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KISA안에 대하여 西獨과 美國 內의 금융기관들이 먼저 자금지원하기를 꺼렸다. 그러다가 1969년 4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IECOK (對韓國際經濟協議會) 年次總會가 열렸다.

綜合製鐵所實現을 책임진 朴忠勳부총리는 世界銀行으로부터 綜合製鐵事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고자 모든 설득노력을 다하였으나 世界銀行도 KISA안의 지원을 거부했다. 여기서 오래도록 우리나라가 실현하고자 추진해온 綜合製鐵所建設問題가 또다시 벽에 부딪힌 것이었다.

自主的 의지로 一貫事業推進

일이 다급해지자 經濟企劃院은 KIST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모든 綜合製鐵計劃을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모든 旣存計劃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KISA안이 지니고 있던 불합리한 점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당시 綜合製鐵所의 일괄건설이 힘들게 되자 새로 제기되기 시작한 안으로서 綜合製鐵所를 한꺼번에 건설하지 말고 우선 壓延工場을 먼저 건설한다음 나중에 製鐵工場등을 건설하자는 分割建設案의 비현실성을 명백히 지적했다.

壓延工場을 먼저 건설하는 경우 壓延素材인 스래부, 부룸등 중간소재의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壓延中間素材인 鋼魂의 국제무역량은 경기변화에 따라 그 변동이 극에서 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壓延素材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해 壓延工場만의 건설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1969년 5월22일에 青瓦臺에서 朴大統領의 주재하에, 朴忠勳부총리, 金正濂상공부장관, 李翰林건설부장관, 金鶴烈경제제1수석비서관, 朴泰俊종합제철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綜合製鐵所建設對策에 대해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브리핑 도중에 壓延中間素材의 국제교역량 동향에 대해 언급하자 朴大統領은 수첩을 꺼내보며 무엇인가 수긍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브리핑이 끝난 다음 朴大統領은 세가지 지시를 내렸다.

첫째, 綜合製鐵所建設이 힘들다고 해서 鐵鋼一貫工場建設을 늦추고 壓延工場만을 먼저 세울 수는 없다.

둘째, 綜合製鐵所建設計劃作成을 외국기관에게만 일임하고 결과만을 기다리는 자주성없는 태도를 지양하고 韓國自體의 안을 만든 다음 적극적 자세로 세계은행등 외국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세째, 그간 本工場建設과 관련하여 먼저 추진해오던 浦項의 각종 지원시설건설공사를 後前計劃대로 추진해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0일후에는 朴忠勳부총리가 해임되고 브리핑할 때 누구 보다도 가장 실랄하게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박하던 金鶴烈경제제1수석비서관이 새 부총리 겸 經濟企劃院 長官으로 임명되었다.

장래지향적인 大規模計劃

1969년 6월3일 金鶴烈부총리는 취임하자 바로 다음날 무엇 보다도 먼저 새로운 綜合製鐵所建設計劃을 작성하라고 "綜合製鐵事業計劃研究委員會"(소위 전담반)을 구성했다. 鄭文道企劃院次官補를 단장으로 하고 盧仁煥公共借款課長을 간사로 한 계획단에서 다시 技術計劃作成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製鐵工場의 경제성 분석에는 KIST의 尹汝京실장, 철강공업의 현황분석, 철강재의 수요분석, 철강공업의 육성방향 조사분석 등을 위해서는 商工部, 浦項綜合製鐵,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들로부터 요원들을 차출하여 파견근무토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綜合製鐵事業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 경위를 누구 보다도 잘 아는 金副總理는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 이 核心事業實現에 전력투구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 흔히 「浦項제철」을 韓國경제발전의 상징으로, 한국공업발전의 저력으로 꼽는 일이 많다. 종합제철사업은 그만큼 비중이 높고 따라서 각 분야의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金在官교수의 이 글은 우리나라 종합제철사업의 원류를 파악하는데 드문 사료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편집자 註〉

金鶴烈부총리는 專擔班 發團에 임해 『여러분 일생에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른 일은 일체 생각할 필요없다. 불철주야 綜合製鐵만 생각하라. 일이 안되면 漢江에 빠져 죽을 각오로 임하라』하고 엄포를 놓았다.

每週末이면 作業推進狀況을 보고해야 하는데 진도가 시원치 않으면 하도 직선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報告責任者가 애를 먹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綜合製鐵所建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핵심적 문제는 製鐵－製鋼－壓延의 현대적 一貫生産施設이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고, 영세한 製鋼作業과 群小 壓延工場들에 의한 비경제적 생산체제의 개선과 아울러 어느 旣存工場도 대규모공장으로 확장할 수 없는 한계점을 타개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독자적인 綜合製鐵所建設計劃을 세움에 있어 우선 국내외 鐵鋼工業의 현황을 분석하고, 世界鐵鋼工業의 발전추세를 검토하여 ① 경제성있는 대단위 一貫作業施設을 갖춘 綜合製鐵所 건설을 계획하고, ②생산성이 가장 높은 最新工法인 連續鑄造施設을 대폭 도입하며, ③ 장차 세계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현대적 工場配置計劃을 세우기로 했다.

2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끝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의 最大計劃案인 제1단계 생산능력이 103만톤에 이르는 綜合製鐵所建設計劃案이 완성되었다. 투자규모는 외자가 1억6백만달러, 내자 633억원으로서 규모가 그간의 DKG안, Blaw-Knox안, KISA안 등 어느 안보다 컸으나 製鋼屯當투자단가는 훨씬 저렴한 쇄신된 안이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政府는 8월4일에 專擔班이 작성한 103만톤안을 우리나라 政府의 正式案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안의 獨步性은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浦項綜合製鐵所의 전경이 잘 실증해 준다. 즉, 초기 생산능력 103만톤의 공장을 오늘날 12배나 큰 1,200만톤의 공장으로 확장했어도, 20년전 계획당시에 만든 공장배치도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熔鑛爐製銑工場이나, 제강공장 및 압연공장을 수없이 추가건설하면서도 먼저 세운 공장의 조업을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공장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직 당초에 계획적으로 예정한 요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年産能力을 12배나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래지향적 계획은 초기투자의 증대를 가져오나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이러한 대단한 확장의 계획적 잠재력은 KISA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國家宿願事業의 실현

朴大統領은 그동안의 모든 우리나라 綜合製鐵所建設計劃의 실패가 소요 외자의 확보불능에 있었음을 통감하고, 마침내 國家的 숙원사업의 실현을 위해 식민착취의 배상금으로서 확보해 둔 有·無償의 對日請求權資金을 전용하기로 내정하였다. 이는 6·25전쟁당시 李承晩대통령이 戰災復舊를 위해 仁川重工業을 그 소중한 政府保有달러로 선설하겠다고 단안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仁川重工業과 浦項製鐵이 한결같이 민족의 혈육과 같은 귀중한 자금으로 실현되었다는 歷史的 共通點을 지니게 되었다.

그간 작성한 새로운 대규모 製鐵所案이 政府案으로 확정되자, 8월하순으로 예정된 韓日閣僚會談에 앞서 鄭文道團長과 함께 日本으로 먼저 건너갔다. 日本의 鐵鋼連盟을 비롯하여 八幡製鐵, 富士製鐵 및 日本鋼管의 日本 鐵鋼三社 대표들과 만나 우리의 새로운 綜合製鐵所計劃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8월27일에 있었던 閣僚會談의 최종일에 金鶴烈부총리는 崔圭夏외무부장관, 金正濂상공부장관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韓國의 종합제철소건설의 당위성 역설과 더불어 우리의 새로운 계획안에 대한 日本鐵鋼三社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의 인정을 논거로 제시, 청구권자금을 綜合製鐵建設事業에 앞당겨 전용되는데 대한 日本政府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韓國의 製鐵事業에 대한 韓日間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日本財界는 활기를

띄게 되었고 韓日業界間의 분주한 교섭이 전개되어 갔다.

11월말에 來韓한 世界銀行調査團도 우리의 103만톤 계획안을 검토한 다음 그의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드디어 우리나라 최대의 숙원사업에 대한 國際的 協同의 길이 훤히 열리게 되었다.

드디어 1969년 12월3일에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金鶴烈부총리는 日本의 金山大使와 함께 總外資가 1억2천3백70만달러가 드는 종합제철건설에 관한 韓日間의 기본협정에 조인하였다.

金鶴烈부총리는 취임한지 꼭 6개월만에 國家的 대사업인 綜合製鐵所建設事業의 추진계획을 성공시켰던 것이었다.

調印式이 끝난후 金副總理는 전담반전원을 서울시청앞에 있는 뉴 코리아호텔로 초대하여 오찬을 겸해 解團式을 가졌다.

朴正熙대통령이 직접참석하여 1970년 4월1일에 浦項에서 金副總理 이하 각계 각층의 많은 人士들과 專擔班員들이 참석한 가운데 綜合製鐵所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本工場의 건설공사는 쾌속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國際景氣가 안정된 시기였으므로 日本으로부터의 製鐵設備의 제작과 인도가 순조로이 추진되어 공장건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진전되었던 것이다.

1973년 1월에 본격적인 工業化發展을 위하여 "重化學工業化 政策"이 선언되었다. 政府는 고도공업화시책을 펴나가기 위해 政府機構를 대폭 개편하였다. 商工部를 重化學工業化體制로 전환한 李洛善長官의 제청으로 筆者는 初代重工業次官補로 임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鐵鋼工業을 위시하여,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 등 중공업발전의 기틀을 확립할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해 6월8일에 드디어 착공한지 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大容量 熔鑛爐製鐵工場에서 역사적이고도 감회어린 첫번째의 火入式이 거행되었다.

1953년 6·25전쟁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鐵鋼工業育成計劃을 세운지 만 20년만에 현대적 綜合製鐵所를 보유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마침내 先進製鐵國家들의 일원이 됨으로써 오늘날의 자동차공업을 비롯해 조선공업, 기계공업, 전기전자공업, 방위산업 등 온갖 선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유발한 鐵鋼基盤을 확립하게 된 것이었다.

轉禍爲福의 民族的 大偉業

우리나라 綜合製鐵事業의 기적적 대성공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6·25 전쟁이후의 모든 政府가 일관되게 철강공업육성에 國策的 努力을 집중시켜 왔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허다한 역경으로 事業實現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좌절함이 없이 歷代政府가 그때 그때 나름대로의 礎石을 하나씩 쌓아 올린 불굴의 실천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성패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자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하고 고귀한 "民族資金" 다시 말해 6·25전란시의 國家保有弗과 植民地代價의 請求權資金 即 "民族資金"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네번째로는 외자확보가 불가능하여 궁여지책으로 "自體"資金을 짜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오히려 戰禍爲福이 되어 外國 또는 外國會社의 독단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약동하는 발전적 의지를 마음껏 반영시킨 계획을 자주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우리나라가 綜合製鐵所建設의 대역사를 성취하는 동안 20년이란 오랜 試練을 겪은 것이 오히려 다행하게 더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해 거쳐야할 유익한 成熟過程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國家的 일대 숙원사업을 실현함에 있어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및 소중한 자금적 요인 모두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전개 속에서 융합됨으로써 마침내 우리나라는 工業化史上 가장 큰 위업을 이룩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